

사회주의원칙은 경제강국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

황 철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이르는 곳마다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세계적수준의 최첨단생산기지들과 문화후생 시설들이 련이어 일떠서는 등 창조와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세기를 주름잡는 이 모든 기적과 혁신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온 결과에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원칙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생명선이며 사회주의원칙에서 벗어나면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고 경제를 발전시킬수도 없으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경제건설과 경제생활에 심중한 후과를 미치게 됩니다.》

사회주의원칙은 경제강국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사회주의원칙은 사회와 집단의 요구,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복종시켜나가는 사업원칙, 활동원칙을 말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이 최우선, 절대시되고 모든것이 그 실현에 복종된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경제사업은 반드시 사회주의원칙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원칙이 경제강국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은 근로인민대중이 경제의 주인으로 되어있고 모든 물질

적재부가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며 그들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경제가 빨리 발전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의 이러한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기 위하여 나라의 생산자원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은 사회주의원칙이 구현된 경제사업에 의해 높이 발양되게 된다.

사회주의원칙이 구현된 경제사업은 근로자들이 경제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한다.

경제의 주인은 생산과 관리뿐아니라 생산물처리도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사회적집단을 말한다. 경제의 주인으로 되는데서 기본은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되는것이다.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은 경제생활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주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의 소유,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로 되어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주인은 다름아닌 근로자들 자신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되었다고 하여 경제의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권리가 저절로 행사되는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이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되어도 경제사업이 그에 맞게 진행되지 못하면 그들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고 나아가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경제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권리는 사회주의원칙이 구현된 경제사업에 의

해 보장된다. 경제사업의 모든 형태와 내용들이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데 집중되고 그것이 근로자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진행해나가는 사업으로 될 때 그들은 경제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풀어나가게 된다.

사회주의원칙이 구현된 경제사업에 의해 근로자들은 생산수단의 소유자, 경제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되며 따라서 나라의 모든 생산자원이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동원리용되게 된다.

사회주의원칙이 경제강국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근로자들의 정신력과 집단의 단결된 위력을 충분히 발양시키게 하기때문이다.

근로자들의 높은 정신력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원동력이다. 자체의 힘과 자원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그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어떻게 발동하는가에 달려있다.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된 자각과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려는 열의를 높여주는것이다.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근로자들이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려는 열의로 충만될 때 그들의 정신력은 최대로 발양되게 된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자각과 열의를 낳는 경제적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는 근로자들을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공통된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지고 사회적공동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

은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성실하게 일한다. 사회적공동로동에 참가하는 태도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려는 자각과 열의이다.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어있다고 하여 근로자들의 자각과 열의가 저절로 높아지는것은 아니다. 생산수단은 사회적소유로 되어있어도 경제사업이 사회주의원칙에서 조직되지 못하면 근로자들의 주인된 자각과 열의가 떨어지는것은 물론 사회주의사회의 경제적기초가 흔들리게 된다.

근로자들의 주인된 자각과 열의를 높여 그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동시키자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경제사업이 사회주의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적생산과 분배를 조직하고 축적을 조성하며 근로자들을 경제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등 모든 경제사업이 사회와 집단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그들 자신에 의해 수행되어야 근로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것인 동시에 자기자신을 위한 일로 된다는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

누구나 사회적공동로동에 참가하여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의 재부가 늘어나며 자신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더 잘 살게 된다는 인식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주인된 자각과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려는 열의를 한껏 높여준다. 결과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있는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정신력은 집단의 단결된 위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는 근로자들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 발전한다.

집단의 단결된 위력은 높은 정신력을 지닌 근로자들속에서 발휘되는 커다란 힘이다. 근로자들의 높은 정신력이 집단의 단결된 위력으로 나타나자면 그들의 활동이 동지적협조와 방조속에서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전환되어 일정한 목적달성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근로자들이 지닌 높은 정신력은 사회주의원칙이 구현된 경제사업에 의해서만 집단의 단결된 위력으로 전환될수 있다. 사회주의원칙에서 진행되는 경제사업은 모든 부문과 단위,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을 국가적요구, 전사회적인 리익실현으로 지향시키고 그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휘를 수행하는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경제사업을 사회주의원칙에서 전개하여야 모든 경제활동이 세부적측면에 이르기까지 계획화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진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전환되어 국가적요구, 전사회적리익을 실현하는데로 지향된다.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동지적으로 협조하고 방조하는 근로자들사이에 행동에서의 유기적통일이 보장되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사회주의원칙이 구현된 경제사업에 의해 근로자들의 정신력은 최대로 발휘되고 집단의 단결된 위력이 강화됨으로써 주어진 로력과 생산수단으로 경제발전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는 강력한 추동력이 마련되게 된다.

사회주의원칙이 구현된 경제사업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통해 수행된다.

사회주의국가는 나라의 모든 생산자원을 자기 수중에 장악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사회주의원칙에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남김없이 동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경제부문과 단위들에 균형적으로 분배하고 그 리용에 대

한 장악과 통제, 지도를 강화한다. 국가는 일원화계획체계에 의거하여 생산계획과 로력계획, 자재보장계획 등 모든 계획을 전사회적범위에서 맞물려진 유일계획으로 작성하고 그 집행에 대한 행정경제적, 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법적통제를 안받침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아래 단위들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면서도 그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강화한다. 만일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기능을 약화시켜 기업관리를 풀어놓는 방향으로 나가면 사회적으로 기관본위주의와 개인리기주의가 조장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귀중한 생산자원이 망탕 리용될수 있으며 막대한 생산자원이 낭비될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주의원칙에서 모든 부문과 단위들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통일적으로 지휘함으로써 나라의 모든 생산자원이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되게 한다.

사회주의원칙이 경제강국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생산물분배를 바로하여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물질적보수와 혜택이 차례지게 하기때문이다.

생산물분배를 바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사업의 중요한 사명이다.

생산은 언제나 사회적생산이며 생산물은 반드시 그 생산에 참가한 사람들사이에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산물을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속한 권한으로 된다.

생산수단이 국가와 사회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물분배에서 그 누구에게도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물분배권한은 오직 국가와 사회만이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근로자들의 공동로동에 의해 창조된 생산물을 사회주의원칙에 따라 사회공동의 수요충족과 근로자들의 생활보장에 돌린다.

사회주의원칙에 따라 생산물은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차례지게 된다. 국가와 사회의 동등한 주인이 된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사회적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몫이 차례지게 하는것만큼 공정한 분배는 없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았을 때에는 분배몫을 주지 않는것을 통하여 사회에 놓고 먹으려는 건달군을 없애고 누구나 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것만큼 정확한 분배는 없다.

생산물분배에서 사회주의원칙은 사회의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더 높은 열성을 내여 일하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며 생산물분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경제강국건설사업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